

“교회와 국가 위한 인재 양성” 포부는 어디로?

청교도들이 세웠던 예일대서 성전환에 수간까지...

〈默姦〉

최근 언론들에 연일 보도되는 예일 대학교에 대한 소식은 미국 젊은이들이 처한 성문제 인식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첫번째 소식은, 그동안 교직원들이 학교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성전환 수술에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혜택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측은 “학생들이 성전환 수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건강보험으로 성전환 수술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은, 그만큼 수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학생들이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일단 정신적 치료 외에 물리적 수술도 성 정체성 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다는 점이다. 이게 무슨 문제냐고? 화만 나면 가족

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자에게 “당신이 잘못하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자”고 말하는 것도 OK고 “당신은 선천적으로 부모의 유전적 성향에 의해 폭력적이므로 그 폭력성을 가족에게 더 잘 발휘할 방법을 찾아 보자”고 말하는 것도 OK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성전환을 자연스럽게 보는 시각이 학교 내에 만연해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성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일지라도 치료를 통해 바람직한 성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성전환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리면 당사자는 어떤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시인하며 정신적 치료와 상담을 받으려고 할까? 아니면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수술을 선택하게 될까?

질문이 어려운가? 좀더 쉽게 설명해 보자. 그동안 동성애자들은 “동성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

The 45th National Prayer Breakfast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국가조찬기도회 =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주제로 국민화합과 경제번영 및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두고 기도하는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7일 오전(현지시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국내외 교계 및 정계, 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들과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지역 목회자, 다문화세대,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탈북자 출신 목회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애는 선천적,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치료 혹은 변화될 수 없다. 그런 시도는 인권 침해이므로 동성애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동성애적 성향에 환경적 요인 외에 선천적,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소아성애적 성향에도 선천적, 유전적 요인이 있다. 이대로면 소아성애자도 “나를 치료하거나 구속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이므로 마음껏 소아성애

를 자행할 수 있도록 합법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소아성애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면 소아성애자가 스스로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범죄를 선택할 것인가? (기사 2면으로 이어짐)

한국에서도 동성애 옹호법 계속 추진

2차례 실패에도 민의 왜곡

“심각한 사회적 혼란 초래”

동성애 등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이 또다시 발의돼,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몇 차례의 입법 시도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장애, 나이와 언어 등 보편적인 차별금지 대상에 임신 또는 출산,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슬쩍 끼워 넣은 것이다.

이같은 입법 시도는 지난 2007년 등 두 차례나 있었으나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에 반하는 입법 시도를 계속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더구나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동성애 범죄화에 반대한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 4면으로 이어짐)

피임약 보험 포함 반대소송에 신학교도 동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성경에 근거해 강력 반대”

직원들의 낙태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려는 오바마케어에 하비로비 등 기독교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독교 대학들도 동참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대표적 보수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신학교도 최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약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낙태를 권장하는 연방정부의 수정법안에 대해 성경과 수정헌법 1조를 바탕으로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신학교 측은 “피임약의 의료보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중요한 초점”이라고 밝혔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 앞서 이미 지난해 10월 동부텍사스침례대학교(ETBU), 휴스턴침례대학교(HBU)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휴스턴침례대학교 학장인 존 마크 레이놀즈(John Mark Reynolds) 박사는 “이 소송은 종교적 자유에 관한 것”이라며 “종교 자유가 침해되는 이 문제는 (피임에 반대하는) 가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며 미국 전체의 이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반발이 거세어지자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종교 기관, 사회봉사 단체, 종교 계통 대학들, 종교 계통 병원들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베크트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과 같은 단체나 가톨릭 지도자들은 “최근 나온 타협안은 양심의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이 이어지면서, 미 의회는 ‘보건복지 양심권에 대한 법’이라는 제목의 H.R 940을 고려하고 있으며, 66명의 공동 후원을 받고 있다.

김준형 기자

WCC '선교 모라토리움' 반작용으로 탄생한 로잔언약 >> 8면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유렵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월~금: 8am~6pm 토: 8am~5pm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는 6월 15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제 45회 국가조찬기도회 개최... 분단 극복과 국가 미래 위해 기도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7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 주신 것은 정의 실천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를 주제로 국민화합과 경제번영 및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두고 기도하는 제 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7일 오전 서울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제 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국내외 교계 및 정계, 법조계 등 각계 지도자들과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지역 목회자, 다문화세대, 아시아-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탈북자 출신 목회자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및 군사적 도발 시사로 인한 국가안보 위기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난맥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였기에, 더욱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시간이었다. 참석자들은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다. 아울러

남북분단의 역사 극복과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 간구했다.

기도회는 김명규 장로(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의 사회로 황우여 장로(국회조찬기도회 회장, 새누리당 대표)의 개회사, 김진표 장로(국회의원)의 대표기도, 장미란 선수와 인요한 박사(세브란스병원)의 성경봉독 순으로 진행됐다.

황우여 의원(새누리당)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아래, 기쁨이 충만하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아침에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세대·계층·지역·이념 간의 갈등이 진리 안에서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높임 받음으로 국민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꽃피는 나라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미 6:6~8)’을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단 한 번 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게 살아야 한다. 당시 남유다의 타락은 심각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로 가득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했다”며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정의를 실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도리어 그 권세로 정의를 무너뜨렸다.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영훈 목사는 “한국 근대화

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기독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큰 부흥을 이뤘으나, 정의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는 소홀했다. 이제는 정의를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정의를 행하며, 공홀과 자비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영훈 목사의 설교 이후 단상에 올라, 반드시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한국교회와 각계 지도자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작년 말 대통령 후보였을 때 국가조찬기도회 현신예배에 참석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가졌다”며 “대내외 환경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하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민 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설교를 통해 정치 지도자가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셨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고 회생과 봉사로 마지막 헌신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강한 어조로 “국민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정치권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기도를 맡은 대법관 김신 장로가 대통령과 국가발전을 위해,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직전회장 박래창 장로가 경제번영과 민족화합을 위해, 제2군사령관 김요환 집사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성전환은 어떤가? 이것을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뻔하다.

구역 레위기 18장에서는 매춘,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수간을 동일한 등급에 놓고 금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지만 모두 죄의 범주에 속하며 특히 성적인 범죄는 공동체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 구역 당시는 성전환 수술

을 할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하나님은 이를 예상하신 듯 신명기 22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일대학교가 성전환 수술 비용을 보험으로 부담하겠다고 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발표했다. 질 맥데넬 박사는 예일대학교를 다니는 학생 55명을 대

상으로 “섹스, 나는 정상인가”라는 주제의 워크숍을 했다.

이 중 9%는 매춘을 해 봤으며 12%는 섹스 동영상을 찍어 봤다. 50% 이상의 학생이 섹스 중 상대방의 가학적 행동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성경험이 없는 학생도 22%였지만 3%는 동물과도 섹스를 해 봤다고 답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성적 범죄 중 일부들이다. 현재는 수간이 성경적으로도 불법이고 세상 법적으로도 동물학대에 들어가는 불법이지만 동


성애, 성전환에 이어 소아성애까지 나서는 마당에 수간도 조만간 독특한 성적 취향으로 받아들여질 지 모른다.

참고로 예일대학교는 미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다는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있는 학교다. 윌리엄 태프트, 제럴드 포드, 조지 H. W.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힐러리 클린턴 등 정치 영역에서만 해도 이루 셀 수 없는 지도자들이 배출된 학교다.

이 학교에서 성정체성 문제에 혼

란을 겪은 이들이 사회로 나와 미국을 이끌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떤가? 예일대학교는 1701년 청교도 목회자들에 의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로 1757년 미국 대학 가운데 캠퍼스 내에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진 학교이기도 하다.

지금도 초교과 신학부가 예일대에 존재하고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청년들을 교육하며 교회와 국가를 위한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창립 비전 선언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심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먼트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PH Hyundai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장재효 목사 초청 춘계영성집회

주제: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집회 일정

3월15일 (금 오후 7시 45분) 룸8:1-11 생명과 평안을주시는성령
3월16일 (토 오후 7시) 요14:16-24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3월17일 (주일 오전 9시) 행 17:24-31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예수님 (주일 오전11시) 갈5:16-26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장 소 : 동문교회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집회문의 213-483-6625

3월 4일 (월 오후7시) 라이마미션 선교사대회
3월 6일 (수 오전 11시) 미주장신대학교
3월 10일 (일 오전 11시) 성재복음선교교회

2월 10일 (일 오전11시) 에덴교회
2월 17일 (일 오전11시) 세계성경장로교회
2월 22일 (금 오후7시 30분) 창대교회
2월 23일 (토 오후7시 30분) 창대교회
2월 24일 (일 오전8시, 11시) 창대교회
2월 27일 (수 오후7시 30분) 남가주광영교회

주 관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International Holy Grace Gospel Mission)

약력소개

- 총회신학대학원 졸업
- Faith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이수
-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선교신학연구 과정 이수
-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과정 이수
- Faith Evangelical Seminary 명예박사
-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 성령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전국기도원 총 연합회 총재
- 성은동산(기도원, 경도원, 수양관) 원장
-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후 원 : 기독교일보, 세계 성경장로교회, 창대교회, 에덴교회, 남가주 광영교회, 라이마미션 선교회, 미주 장신대학교, 성재 복음 선교교회, 동문교회

온두라스에서 '1민족 1일' 캠페인 진행

가난과 범죄로 고통받는 나라에 변화의 동력 제공



'One Nation One Day' 캠페인

젊은 미국 사역자가 온두라스 정부를 상대로 2,000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중앙아메리카에 모여 1주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설득해 왔다. 이는 '1민족 1일(One Nation One Day)' 캠페인의 일부로, 사역자들은 의료봉사를 제공하면서 잠재적으로 삶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행사를 주관한 도미니크 루소(Dominic Russo)는 29살의 젊은 청년으로 NGO 단체인 '미션스미(Missions.Me)'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미 약 1,600명의 사람들이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우리와 함께 온두라스에 모이기로 서명했다. 우리는 구호물자를 이미 컨테이너에 실었으며 8명 이상이 모였다. 우리는 7월 20일 온두라스에서 18개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디아 터너(Jedidiah Turner)와 가베 발호른(Gabe Bahlhorn)과 함께 이 사역을 이끌고 있다.

루소는 이 행사에 대해 "우리는 온두라스 정부 채널을 통해 이를 생방

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개의 기독교 네트워크와 함께 온두라스의 모든 라디오와 방송국을 통해 이를 중계할 계획이다. 모든 온두라스 사람들이 이날 하루 동안 변화되고 충격을 받는 것이 비전"이라고 전했다.

온두라스는 가난과 범죄로 국가적 손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가 시급하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온두라스 공화국은 약 830만명의 인구가 있다. 이들은 대부분 가톨릭교를 믿고 있으며 그 가운데 3%만이 개신교 신자다. 이들은 폭력 및 범죄조직과 관련된 각종 위협에 노출돼 있다. 온두라스는 수입의 불공평한 분배, 심각한 실업률과 국가의 채무로 중앙아메리카에서 2번째 가난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다.

이것이 포르피리오 로보(Porfirio Lobo Sosa) 대통령이 루소의 '1민족 1일' 캠페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이유다. 이 캠페인을 통해 2,000명의 봉사자, 컨테이너 18대 분량의 음식

과 공급물자가 제공되며, 온두라스 18개 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복음적인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루소는 크리스천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는 로보 대통령이 온두라스가 마주하게 될 많은 도전들, 치유, 일치, 화평을 보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로보 대통령은 현존하는 분열 가운데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 그는 또한 국제적인 투자의 문을 열어주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들과 학생들, 사역자들이 모두 함께 와서 온두라스에 집중하는 것은 분명히 온두라스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루소는 성경 이사야 66장 8절 "나라가 여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여저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 하였도다"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이 캠페인을 조직했다. 이 캠페인은 의료진, 사역자들, 학생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국가를 상대로 진행된다. 강혜진 기자

미스바대성회가 우리에게 남긴 것

토마스 멩의 기자수첩



남가주 교계 연합집회 미스바대성회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동양선교교회에서 대성회를 이룬 끝에 막을 내렸다. 성회 내내 동양선교교회 1300여석을 가득 채우고 분위기는 뜨거웠다.

지난 1월말 성회 준비 기자회견에서 한 목회자는 이번 대회 강사로 초청된 박보영 목사에 대해 '목회자들을 깨트리는 목회자'라고 소개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강사 목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채 성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에서 박보영 목사는 말 그대로 기독교인을 깨트리는 목회자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

대로 가고 있는가' 하고 자문했더니. 비록 힘에 넘치고 청중을 휘어잡으며 화려한 수사법을 구사하지는 않았지만 여느 메시지보다도 진솔하면서도 잔잔한 은혜가 넘쳤다.

무엇보다 그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다가온 이유는 세상적으로도 그는 '잘 나가는' 의사였지만 거듭난 후 자신의 소유를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살아온 '삶의 간증'을 가감없이 전했다. 즉, 삶이 바로 메시지 자체였던 것. 그래서인지 성회 내내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이들이 많이 보였고, 많은 지인들이 성회를 통해 도전을 받았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성회 마지막 날 주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다. 기독교

대회 장내 분위기 연일 뜨거워

주님의 삶 따라 사는 것이 숙제

을 정도로 강력한 도전과 함께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했다. 이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다.

성회에서 박보영 목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속사람이 거뭇났는지 돌아봐야 한다. 거뭇나지 않으면 목사가 장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며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눈의 범죄를 철저하게 절연하고 사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도전했다. 또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지 모른다"며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 좁은 길은 가는 길이 험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말씀을 듣고 적지 않은 이들이 '과연 나는 믿음의 길을 제

교를 흔히 실천의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관념과 목상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 박보영 목사의 조부는 감리교의 고 박용익 목사다. 그가 조부로부터 받은 유언을 언급하자면 '△사랑하지 못할 것을 사랑하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꼭 용서하라 △변명하지 말고 살아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살라는 것이었다.'

박 목사는 이 유언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목회를 펼쳐 왔다고 한다. 사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

제1회 미스바대성회를 통해 남가주 성도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선교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미사여구보다 삶이 곧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처음 제자들을 부르 때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미국인 64% "동성결혼 합법화는 필수적"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동성 결혼을 시민권과 관련된 이슈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2일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대부분 응답자들은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다.

응답자 가운데 58%는 동성결혼이 나이,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시민권에 해당하는 이슈라고 대답했으며, 29%만이 이같은 생각에 반대했다. 64%는 미국 내 동성결혼 합법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24%만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에드 스테처(Ed Stetzer) 대표는 "미국인들은 성

직이나 사진작가와 같은 개인들에게 동성결혼을 위한 서비스(봉사)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주거 혹은 고용과 같은 더욱 기본적인 권리로 해석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수준은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젊을수록 동성결혼을 시민권과 관련된 이슈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았다. 18세에서 29세의 65%가 동성결혼이 시민권에 해당한다고 동의했다. 이 연구를 통해 나온 주목할 만한 통계는, 63%의 미국인들이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목사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맡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는 점이다. 58%의 경우는 만약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경우, 사진작가들에게 이와

관련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믿었다. 반면 82%의 대다수는 고용주가 성적지향성에 따라 누군가의 고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스테처는 "대다수 미국인들이 동성결혼을 나이,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시민권과 관련된 이슈로 분류했으며 응답자의 3분의2 이상은 미국 내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이슈에 대한 기준과 구분이 매우 명확하게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191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9% 포인트이다.

강혜진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GED반 개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미연속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고정 관념을 깨라"



큰은혜교회 집회 모습

새벽예배 이렇게 하면 대박 50명에서 1천명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가 8일 오후 명성교회(담임 김삼환 목사)에서 열린 '제4회 2013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컨퍼런스'에서 새벽기도 성장 노하우를 전했다.

서울 낙성대동에 위치한 큰은혜교회는 이규호 목사 부임 후 새벽예배 참석자 수가 50명 미만에서 5년여 만에 1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매달 1일 가정과 교회를 깨우는 '새날 새벽예배'에는 거의 전 교인이 출석하고 있다.

"나는 새벽기도를 이렇게 성장시켰다"는 강연에서 이규호 목사는 "새벽기도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전통 중 하나로, 교회가 대대로 지키고 이어 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바쁠수록 더욱 새벽을 깨워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범이고, 어려울수록 더욱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먼저 '새벽기도 정체현상'의 몇 가지 이유를 짚었다. 먼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성도들이 새벽기도를 대단한 신앙처럼 생각하고,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올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는 것. 그는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새벽기도가 필요하고, 그들도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녀들, 특히 어린이나 학생들은 새벽기도와 관계없다는 생각도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며 "부모는 자녀들이 한 시간이라도 더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도 부모가 깨워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벽에 일어나 새벽기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원인으로는 '목회자의 편견'

을 꼽았다. 구체적인 예로는 △성도들, 특히 직장인 남성들이 새벽예배에 나오지 않는 현상은 당연하다 △새벽예배 설교는 가능한 짧게 하고 개인 기도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 △새벽기도는 조용하게 드려야 한다 등이다. 이 목사는 "새벽예배가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새벽예배 설교가 달라져야 하고, 합심기도나 통성기도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새벽예배에 나오는 성도 수가 적다는



이규호 목사

이유로 예배 공간을 좁은 곳으로 옮기거나, 고민하지 않는 설교자의 매너리즘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규호 목사는 부목사 시절 명성교회에서 배운 새벽기도 노하우의 핵심을 '변화'라고 했다. 먼저 '새벽을 대낮 같이', 이 목사는 "성도들은 새벽예배에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오기 쉬운데, 그럴수록 새벽을 깨우기 위해 새벽을 대낮 같이 만들려고 노력한다"며 "새벽기도라 해서 찬양팀이나 안내자, 찬양대가 서지 말라는 법은 없고, 저도 설교할 때 목소리 톤을 높이고 주일예배 때보다 더 힘있는 목소리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설교 메시지도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을 고려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쉽게 전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사는 "저는 성경 전체에 담긴 사랑과 용서, 긍휼의 메시지를 통합적으로 선포한다"며 "누구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능력을 받도록 하는 목표로,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되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간증과 예화도 사용한다"고 했다.

도들이 새벽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며 "그래서 부임 후 첫 새벽예배를 드리면서 '내일부터 새벽예배는 본당 대에 배설에서 드립니다. 앞으로 새벽예배에 본당 대에 배설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고 선언했는데, 성도들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깨뜨리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나 자신과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들을 위한 식사제공 △역동적인 예배순서 등으로 소개했다. 이 목사는 특히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평소 부모님들이 깨워야 겨우 일어나다가도, 매월 첫날만 되면 스스로 일찍 일어나 새벽예배에 나온다"며 "이런 학생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놀라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어느덧 자녀들을 따라 교회에 나와 등록하는 경우가 생겨나 가족 전도의 기회가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새벽예배 부흥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 목사는 "김삼환 목사님을 통해 배운 새벽영성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 자신의 영성"이라며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그 이상으로 하면 성도들이 감동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경건한 남성성의 모델"이 되기 위해 새벽예배 후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잠을 다시 자지 않고, 기도를 오래 하고 활기차게 생활한다. 또 설교자이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생각으로 직접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설교자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또 새벽예배 시간에는 성도들의 자녀에게 인수기도를 해 주고 있다.

이규호 목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초신자들, 청년들, 남성 직장인들, 업고 다녀야 하는 어린 자녀들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새벽기도에 나올 수 있다면 새벽기도는 성장하게 되는데, 큰은혜교회는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됐다"며 "저희 교회 새벽기도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새벽기도 노하우의 핵심은 '변화'

한국교회의 소중한 전통 이어가야

복음의 핵심 전하고 구체적 적용도

특히 이 교회는 초등학교생과 청년들, 초신자와 남성들을 깨우는 새벽기도회를 추구한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새벽예배 가고 싶다고 부모를 조르고, 청년들이 서로를 깨워주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느냐"며 "새벽기도와 답을 쌓았던 남성 직장인들도 새벽기도에 나오고, 초신자들도 새벽기도의 맛을 들이도록 누군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규호 목사는 "부임 첫해인 2007년 당시 저희 교회는 새벽예배를 본관 지하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었는데, 180명 좌석에 50여명이 채 안 되는 성

이 목사는 "그 후 지하예배실도 채우기 힘들었던 예배자 수가 본당을 가득 채우게 됐고, 교회 근거리 지역 성도들은 물론 일산과 파주, 안양과 시흥 등 원거리에서도 새벽예배를 사모하면서 참석했다"며 "새벽기도의 성공은 곧 예배의 승리로 이어져 새벽기도의 성장이 주일예배 성장을 견인했다"고 술회했다.

이후에는 '새날 새벽예배' 사례를 전하면서 그 특징들을 △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 △학생찬양대 운영 △전도의 기회 △새날 새벽예배 헌금 △안내 및 차량봉사 △청년 찬양팀 △

>> 1면 <동성애>에서 이어짐

이 중 '임신과 출산'의 경우 과도한 전 교육감 등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해악을 끼치리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학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성(性)의 방종사태가 일어나도 징계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교육

적 목적과 면학 분위기에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교적 차별을 금한 부분에서도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이라며 "사이버·이단 단체나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특정종교 등이 인권을 말살하려는데도 침묵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성 정체성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동성애나 양성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학교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 인식이 왜곡되고 심각한 윤리 훼손마저 예상된다"며 "기존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일을 구태여 법제화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불러오려는 저의가 무엇인

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청회조차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입법기관에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민주당 11명과 진보당 1명 등 야당 의원들끼리 몰래 발의한 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의원들이 진정 인권을 우려하여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인권을 말살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실시하는 등 차별금지법안 통과 무산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제 98차 세계전도자 세미나 개최

한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 사역에 헌신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계 사랑선교회에서는 영혼구원 사역에 힘 쓰시는 교회와 선교사 및 전도자를 위하여 각종 전도지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된 전도지, 소책자, 간증지, 달력등) 를 무료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 하려고 합니다.

***특히 멕시코 단기 선교팀에게 대량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전도 세미나

일 시 : 3월 23일(토)2013. 오전9:30~오후4:30

장 소 :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대흥 장로교회 EM Chapel)

참가비 : \$10. 전화로 미리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기 타 : 중식제공 각종 전도지 및 생명의 양식 365일증정.

주 관 : World Love Mission Foundation 세계사랑선교회 이삼선 선교사
연락처 : 213-220-3737 / 213-220-3725
psamslee@gmail.com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4월 2일 2013년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쁜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트)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포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서머나교회 김성수 목사 소천



고 김성수 목사

남가주서머나교회와 서울서머나교회에서 담임목사로 목회한 김성수 목사가 지난 6일(수) 오전 0시경에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소천했다.

서머나교회 관계자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럽게 소천하시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집으로 가자'라는 복음성가로 유명세를 탔으며, 도미후 아주사 퍼시픽대에서 목회학석사를 받았다. 2004년에 남가주서머나교회를 개척하고 지난해 4월 서울서머나교회를 세워 목회를 해왔다.

김 목사는 그의 첫번째 저서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에서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물질주의와 실용주의에 물든 현대 기독교를 비판했다.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제20회 정기노회 열려

노회장에 김성일 목사 선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노회가 제20회 정기노회를 열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지난 5일 한미장로교회에서다.

이날 노회장에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 부노회장에 차병학 목사(나성안디옥교회)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됐다. 또한 서기에 김만수 목사(새생명선교교회), 부서기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 회록서기 고주모 목사(LA서부교회), 회록부서기 정석수 목사(피플스교회), 회계 박세훈 장로(한미장로교회), 부회계 박영수 장로(동문교회)가 선출됐다.

신임 노회장 김성일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뽑아준 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개회예배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삼상 16:5-13) 제목으로 설교한 이춘준 목사(직전 노회장, 창대교회)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고,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예심전도법 제5차 컨퍼런스 열린다

한국서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예심전도법'(예심은 '예수님의 마음'의 줄임말)을 익히는 일일 컨퍼런스가 열린다. 오는 19일(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남가주빛나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다.

주최 측은 "전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전도다. 하루 투자로 쉬운 전도, 생활 속의 전도로 바뀌주는 예심전도법은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행복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회비는 10불, 사전 등록 필수. 참석자에게는 점심과 간식이 제공된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 401-9874로 하면 된다.

나성영락교회 창립 40주년, 은퇴 및 임직식 개최

김인수 목사 "은퇴·직분자 모두 헌신에 힘써야"

나성영락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은퇴 및 장로·집사·권사 임직식을 10일 오후 본당에서 가졌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지난달 제4대 담임에 확정된 김경진 목사가 기도 식순을 맡았다.

나성영락교회는 앞서 3일 김경진 목사 환영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김 목사는 취임을 앞두고 노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희민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임직식은 정달성 목사의 기도예배에 이어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가 설교했고, 김인수 목사(미주장신대 직전 총장)의 권면에 이어 원동석 장로가 답사했으며, 김경진 목사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인수 목사는 권면의 자리에서 "먼저 은퇴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법에 따라 직분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법에 있어선 은퇴란 없다. 인생의 밤이 올 때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며 "새로



나성영락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임직식에서 안수위원들이 안수기도하고 있다.

직분을 받는 자들은 마치 사회에서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더욱 기도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소명이다. 교우들은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답사한 원동석 장로는 "부족한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맡겨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겠다"며 "4대 담임으로 오신 김경진 목

사님께서 품은 비전을 잘 이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앞으로 저희를 위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장로은퇴 2명, 집사은퇴 14명, 권사은퇴 38명, 장로장립 6명, 집사취임 2명, 집사임직 22명, 권사취임 1명, 권사임직 21명이 참여했다.

남미워십 리더 박재욱, 첫 솔로 앨범 '삶의 예배' 발표

남미지역의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곡들을 한국에 전하는, 남미워십찬양팀(LAMP)의 워십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재욱(사진)의 첫 솔로 앨범 '삶의 예배'가 출시됐다.

솔로 아티스트로는 낯설지만 박재욱은 남미워십 찬양 앨범에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인약의 하나님', '나 여기'와 같은 주요 타이틀곡을 부른 친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남미워십찬양팀의 창단 멤버로 오랫동안 활동해왔고, 현재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이기도 하다.

오랜 준비 끝에 그가 발표한 첫 앨범 타이틀은 삶 가운데 드린 진실한 예배의 마음을 노래하는 '삶의 예배'다. 요한복음 14:20 말씀을 주제로 만든 타이틀곡 '삶의 예배'를 비롯해 예베소서 5:18 말씀을 중심으로 한 '부어주소서', 시편 18:1을 주제로 하는 '주님 한 분만' 등 예배와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자작곡들이 5곡 수록됐다.

이밖에 남미워십찬양팀 멤버인 최호영이 쓴, 십자가에 대한 목상을 담은 '나무에서', 그리고 찬송가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가 새로운 느낌으로 재편곡됐다. 남미워십찬양팀의 리더 답게 새로운 남미워십들을 번역 수록했다.

오프닝곡인 '나 여기'는 남미워십 찬양 4집 앨범의 타이틀곡과 동명인 곡으로 'Jesus Adrian Romero'가 쓴 현재 남미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곡 중 하나이며, '감사해요 주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의 작곡가 'Alda Celia'가 쓴 경쾌한 라틴 리듬의 곡이다. 이밖에 남미의 대표적인 작곡가 'Bené Gomes'가 쓴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이름' 등 새로운 남미워십 찬양들이 세밀하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번역 재편곡됐다.

이번 앨범에는 '오프라 윈프리쇼'를 비롯 '아메리칸 아이돌' 등 미 방송 음



악을 맡아 온 '브랜든 B. 정'과 남미워십찬양 1.2집과 3.4집의 각각의 프로듀서였던 이대명과 김민수가 음악적인 중심과 흐름을 잘 조율해냈다. 이 밖에도 미국과 브라질의 대표적인 세션들이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다.
추연중(CCM 칼럼니스트)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성회 및 행사

로스엔젤레스 복음화대회

(주강사)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길자연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관석 목사
기독교 참례회 증경 총회장

우리의 조금 대한민국의 해외의 이민 도래지 하와이 사탕 옥수수 밭에서 농장 근로자로 저 임금과 고된 육체 노동으로 믿음과 눈물과 땀으로 이민 생활을 주후 1903년도에 시작하여 금년 2013년도에 “한인 이민 110주년”이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이 제일 많이 거주(77만교포)하는 청교도들의 나라 천사의 도시 로스엔젤레스에서 ‘로스엔젤레스 복음화 대회 및 경축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현재 남가주 한인교회 1,450교회와 약 7,000여명의 목회자들의 기도와 뜻과 정성을 모아 조물주 하나님과 만인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강한 성령님의 권고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이 경축 기념행사에 로스엔젤레스에 찾아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총 사령관으로 모시고 아래와 같이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성회 및 행사”를 개최하여 세계 만민에게 미주, 남가주, 로스엔젤레스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역사적인 “한민족 복음화 대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성직자님(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 일 시 : 주후 2013년 4월 18일(목) - 4월 21일(주일)까지 4일간
- 장 소 : 1.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시무), 2. LA만나교회 (남강식 목사 시무)
3. 임마누엘 장로교회 (PCUSA 소속교회, 한인 목회 강진웅 목사 시무 - K.P.C.A 소속)
4. 월서연합감리교회 (UMC 소속교회, 한인 목회 정영희 목사 시무)
- 주최 및 주관 : 한국기독교 총 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미주지부) 미주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배무한 회장
- 후 원 : 주 나성 총영사관 (신연성 총영사), 중앙일보, 한국일보 미주 본사 (장재민 회장),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이운영 목사),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협의회 (대표의장 변영익 목사 - 제 42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로스엔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회장 표세홍 목사, 어린이 회관 (회장 엄 테레사 목사) 외 각 교계 언론기관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성회 및 행사일정

주후 2013년 4월 18일(목) 축하 사절단 일행 20여명 오전 L.A. 국제 공항 도착

1) 영적대각성일일부흥회 “갈멜산 성회” 열왕기상 18:30-40

청장년 대학생 연합 집회(1.5세 2세를 위한 집회)
일 시 : 4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시무) 424 No. Western Ave., L.A. CA. 90004
강 사 : 조용기 목사
축 사 : 신호범 의원 (워싱턴주 상원 부의장)

2) 통곡 기도회(이슬비 기도회) 누가복음 22:54-62

일 시 : 4월 19일(금) 오전 6시, 4월 20일(토) 오전 6시
장 소 : 동양선교교회 (박형은 목사 시무)

3)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개회 성회 및 대 합창제 1막 행사”

선민 역사의 방 개막 성회 선민 역사 - 창세기 12:1-19
제 1 부 : 경축 개회예배
제 2 부 : 성만찬식 집전
제 3 부 : 독립 유공자 후손들 표창
 *안창호 선생님의 장녀 안수산 여사님, 박관준 장로님의 장남 박영창 목사님, 서재필 선생님의 손자 서동성 변호사님, 김경덕 목사님의 장남 김성훈 목사님.
제 4 부 : 장학금 수여
제 5 부 : 명예 신학박사헌정
제 6 부 : 대 성가 합창제(제1막)
제 7 부 : 만세 삼창 - 박영창 목사님 (순교자 박관준 장로님 독자)
일 시 : 4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장 소 : 만나교회 (남강식 목사 시무) 433 So. Normandie Ave., L.A. CA. 90020
강 사 : 길자연 목사

4) 다민족 합동 결혼식 약 30쌍-(신혼, 신부), 은혼식, 금혼식 포함

가나안 혼인잔치 - 사도행전 2:1-12
일 시 : 4월 20일(토) 오전 11시
장 소 : 임마누엘장로교회 (PCUSA 교단소속교회) 한국 목회 강진웅 목사 시무 K.P.C.A. 소속 3300 Wilshire Bl, L.A. CA. 90020
주 레 : 홍재철 목사(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 대표회장)
 * 다민족 합동결혼식 폐식 후 피로연 있음 (임마누엘 장로교회 친교실)

5) 대 성가 합창제(제2막)

총 음악감독 송규식 목사(약 10개 이상 성가단 참여)
 천군, 천사들의 찬양제 - 누가복음 2:1-14
일 시 : 4월 21일(주일) 오후 7시
장 소 : 월서 연합 감리교회 4350 Wilshire Bl, L.A. CA. 90010
강 사 : 오관석 목사

대회조직

대 회 장 : 김사무엘 목사(제 27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준비 위원장 : 지용덕 목사(제 40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고 문 : 임동선 목사(제 5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박희민 목사(나성 영락교회 원로목사), 박영창 목사(제 10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조천일 목사(제 14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김진형 장로(코리안 퍼레이드 창설자)
공 동 회 장 : 박효우 목사(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수석 부회장) 표세홍 목사(로스엔젤레스 교역자 협의회 회장), 강부웅 목사(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총장) 최학량 목사(제 34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정해진 목사(제 33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강신권 목사(코헨 신학대학교 총장), 박중대 목사(제 37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증경회장)
집행위원장 : 집행 위원장 서영석 장로 (전 로스엔젤레스 한인회 회장, 라크라센타 시 시의원)
총 무 : 김재율 목사
실무 간사 : 차주일 전도사

역사적이고 뜻깊은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경축 및 행사”에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 기독교 총 연합회(미주지부) 미주총회
 Pay to the order : Korea Council Church In U.S.A(KCCUSA)
 1325 12th Ave. L.A. CA. 900010 (213) 858-3781 *세금면세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미주 총회 대표회장 류당열 목사
연락처 (213)858-3781 / E-mail daniely47244@gmail.com

“교파 초월해 모두가 존경하는 원로” ... 인도는 한장총 권태진 대표회장

‘교단 연합’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에 방지일 목사



방지일 목사

오는 31일 새벽 5시 서울 새문안교회(담임 이수영 목사)에서 ‘교단 연합’이 드릴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국내 최고령 목회자인 방지일 목사(104·사진·영등포교회 원로)가 선정됐다.

만히 구세군 사령관이 각각 맡는다. 준비위는 설교자로 방 목사를 선택한 데 대해 “올해 104세로 한국교회 최고령 목회자이며, 교파를 초월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한국교회 원로라는 점 때문”이라며 “또 가장 역동적인 한국교회 역사의 증인이라는 점이 선정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다”고 밝혔다.

부활절준비위원회(위원장 조경렬 목사, 이하 준비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활절 연합예배 순서자를 최근 확정해 발표했다. 예배인도는 권태진 목사(한장총 대표회장), 성만찬 집례는 김현영 기감 서울연회 감독과 엄현섭 목사(루터교 총회장), 축도는 박

또한 “그 동안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 선정 기준으로 (설교자가) 연합예배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됨으로, 방 목사와 같은 원로들에게 말씀 선포를 청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부터는 부활절 준비에 참여하는 교단들의 적극적인 협력에 힘입어 이와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예장백석 9인 방문단 미주 동·서노회 목회자들과 간담회



예장 백석총회 정영근 총회장을 비롯한 9인 방문단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난 8일(금) 정영근 총회장을 비롯한 9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LA를 방문했다. 방문단 일행은 미주지역의 한인 및 현지인 복음화를 위해 조직된 교단 산하 미주서

부노회 목회자들을 만나 대화를 통해 이민 목회자들을 격려하면서 교단 차원의 구체적인 선교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 익일 미주 동부노회를 잇달아 방문해 현지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작은 교회의 어려움 돌파하려면...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라”

예장합동 총회전도부, ‘작지만 건강한 교회’ 전도정책포럼



예장 합동 총회전도부가 주관한 전도정책포럼이 열리고 있다.

예장 합동 총회전도부(부장 한승철 장로)는 11일(월) 총신대 사담캠퍼스 제2종합관에서 총회전도정책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건강한 작은교회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황윤수 목사(총회 국내전도국장)는 ‘포럼 주제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작은교회가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해 미래의 한국을, 미래의 세계를 향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의 희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묵묵히 자신의 길로만 걸어가는데, 작지만 건강한 교회에 있다고 믿는다”며 “전체 교회의 70~80%에 해당하는 작은교회의 건강한 변화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는 한국교회가 비호감으로 전락한 원인으로 성직주의와 성공주의를 꼽았다. 그는 “목사는 회중을 대표해서 예배를 섬기는 것 뿐이며,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평신도보다 영적인 지위가 높다고 이해하는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이 공개적으로 내버린 성직주의를 한국 개신교는 뒷모습으로 불러들여 부활시켰다”고 꼬집었다.

또 황 목사는 양적성장과 축복의 가치관이 신앙의 순수성을 병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황 목사는 “1970년대 경제개발시대와 더불어 한국교회도 양적으로 커지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해서 달려왔다. 성장과 축복에 목말라 허덕였다. 교회가 커지는 것만을 하느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믿는 것 같다”며 “이러한 성장주의는 교회 내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했고, 대형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만이 성공한 목회자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

자라는 잘못된 정서와 선입견을 탄생케 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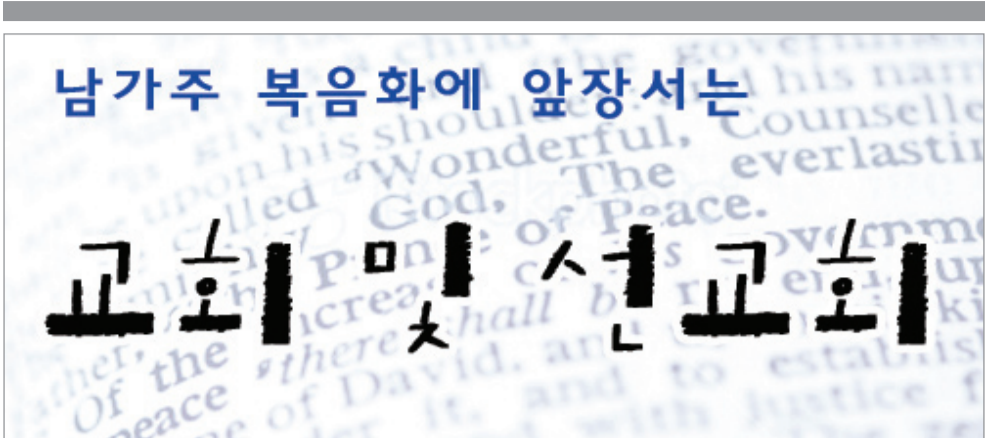
그는 한국교회의 외형 키우기 경쟁의 문제점을 나열한 뒤, “진정한 성공은 부르심을 좇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작은교회에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목사는 대형교회가 흥내낼 수 없는 작은교회의 장점으로 ▲자 체로 하나의 공동체임 ▲모든 교인이 다양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목회적 돌봄에 집중할 수 있음 ▲작은교회도 지역사회에 많은 유익을 제공할 수 있음 ▲수많은 작은교회가 다양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들었다.

안영혁 목사(예본교회)는 ‘작은 교회, 지역 속 신앙공동체’라는 발제를 통해,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했다. 그 나름의 방법은 ‘기다리는 교회’가 아닌 ‘찾아가는 교회’”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찾는다’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는 바깥 세계의 사업에 교회가 동참함을 의미한다”며 “세상이 가게를 차리면 함께 가게를 차리고, 세상이 사회단체를 만든다면 교회도 그 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혁 목사는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역시 지역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10년간 공부방을 운영하며, 카레식당을 개업하고 지역 복지단체와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안 목사는 “작은교회가 꾸준히 자라기 위해서는 연합운동이 절실하다. 한국교회는 작은교회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그때 대형교회와 작은교회가 숲을 이뤄,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Grid of church listings for LA area, including names of pastors, church names, and addresses. Churches listed include Galilee, Galilee, Baptist, etc.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세일기간 : 3월중 구연산 신제품 출시될 때까지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여부에 좋은 알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퍼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피로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건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로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복음에서 생명으로

서형섭 | 이레서원 | 2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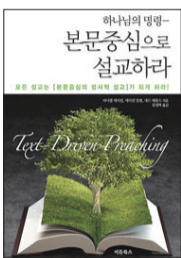
고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영그는 깊은 은혜의 영성으로 복음과 생명의 삶을 정성껏 담은 신학적 신앙서이다. '복음과 생명'에 대해 기존 저명한 석학들이 써낸 신학서와 차별되는 맛이 있다. 신앙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성경의 흐름을 보여주며, 복음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새 삶으로 초청한다.



본문중심으로 설교하라

다니엘 에어컨 외 2인 | 베다니 | 3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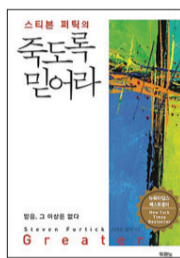
악해져가는 현대 설교에서 강해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방법과 지침을 제공한다. 오늘날 교회는 성급하게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보이려다 인기 있는 세속 예화나 통속 심리학으로 말씀을 대체시켜 버려 영적 무기력에 빠지고 말았는데, 설교자들이 '본문 중심의 성서적 설교'를 회복해야 한다.



스티븐 퍼틱의 죽도록 믿어라

스티븐 퍼틱 | 두란노 | 2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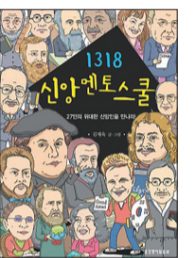
왜 죽도록 믿어야 하나? 적당히 믿으면 죽기 때문이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이다. 결코 작지 않은, 인생의 큰 위험은 낭비다. 다시 우리들의 벤엘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죽도록 충성할 것', '죽도록 사랑할 것', '죽도록 믿을 것',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1318 신앙멘토스쿨

김재욱 | 생명의말씀사 | 167쪽

역사 속에서,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멘토 27인을 소개한다. 그들의 앞선 발자국에서 아이들은 인생의 바른 방향과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대한 신앙 멘토들의 뜨거웠던 열정과 나눔, 진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나면서 가슴 뜨거워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REVIEW

어렵고 생소한 신·구약 중간사를 만화로 부담 없이

생명의말씀사 <만화 성경 역사 속의 고대제국>

<성경과 5대 제국(통독원)> 이후 일반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약과 중간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멸망부터 신약까지의 배경 이야기를 만화로 쉽게 풀어놓은 책이 출간됐다.

생명의말씀사에서 출간한 <만화 성경 역사 속의 고대제국>은 앗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와 헬라 등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 이후 주요 제국들과 함께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 유대인 박해와 마카비 왕조 등을 평신도나 학생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약 700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신약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으로, 당시 정치적 역할관계 뿐 아니라 유대 종교와 문화, 역사적 고난 가운데 이 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대망사

상 등을 다루고 있다. 신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열심당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글과 그림을 구성한 크레마인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널리 전하고자 세워진 기독교 콘텐츠 제작 전문회사다. 이들은 2011-12년 <만화로 보는 교회사> 상·하권을 통해 2천 년 기독교 역사를 만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홍수와 노아방주>,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만화로 보는 기독교>, <기독교를 알아야 인생의 답이 보인다> 등 초신자나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작해 왔다.

지난해 말 나온 만화 <준비된 선물>도 크레마인드 소속 김덕래 작가의 작품이다.

이는 얼마 전 새가족부 운영세미나



만화 성경 역사 속의 고대제국 크레마인드 | 생명의말씀사 | 232쪽

를 개최한 김민정 목사(좋은목회연구 소장)가 쓴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을 만화로 재구성한 책으



준비된 선물 김민정 저/김덕래 글그림

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신자들에게 '준비된 선물'용으로 만들어

졌으나,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하면서 새신자나 기존 성도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공짜 아파트를 거부한 샌프란시스코 거지들', '호박 100만 개면 사람 하나 죽어도 되나?', 영화 <존 큐> 등 다양한 예화들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불신자들의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있다. 책의 부제는 '당신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된 복음 이야기'이다.

원저자인 김민정 목사는 "쉽지만 가벼운 내용은 아니다"며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 너무 종교적이거나 어려운 용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 책을 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존 신자들도 풀리지 않던 답답한 의문들이 정리돼 명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대용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황수원 목사, 재단 이사장 유당열 목사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 교회

금을 얻기 위해서는 손에 잡고 있는 돈을 버려야 하고,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게 얻은 그 금마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아무리 잘 알아도 버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남겨진 음식 하나, 못 입는 옷가지 하나, 못 쓰는 생필품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버리고 나서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왠지 모르는 공허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러니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더 못 놓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의 인심이 더 따뜻하고 풍성합니다. 빈곤하고 어려울 때보다 풍요롭고 일이 잘 풀릴 때, 낮은 자리보다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더 비우지 못하여 갈등과 다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얻어 그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 가치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직분도 권력도 쾌락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상대적 가치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시며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진리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버릴 것이, 세상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이라도, 내가 정한 원칙이며 내 자존심이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별처럼 빛날 수 있었던 것도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가 된 까닭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3:7-8)라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제1회 남가주 미사바대성회 강사로 오신 박보영 목사의 삶이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큰 이유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버린 삶의 간증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역사들을 기대하게 되지만, 그것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얻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사바대성회 토요일 새벽 집회가 끝난 후 이 지역에서 오래 되신 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LA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인 연합집회가 열

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시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집회를 위해 모든 리더들이 먼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림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음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석구석 일마다 수고하신 교역자님들과 한 마음이 되어 섬겨주신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들,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붙잡기 위해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 중에 버려야 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렘!

2세 선교사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이 대학에 가면 70-80%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부모들도 다 커버린 자녀들을 어쩔 수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보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일 학교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민교회를 25년 가까이 섬겨온 나의 경험으로도 이런 주장들은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많은 2세들이 부모님의 영성을 이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2세들의 신앙이 부모님들만 못하다고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다. 수적으로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민교회에서 자라난 1.5세 2세대들 중에 참 좋은 일군들만, 특히 선교사로 활동하고 이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이사로 있는 미주 GMP의 1.5세 선교사인 박 모 선교사는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마친 후 명문신학교에서 Ph.D를 마쳤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출연연 인도 오지로 떠났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드님인 1.5세 H 선교사는 신학교를 마친 후 15년 가까이 파라과이 선교사로 봉사한 후 귀국해서 2, 3년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아프리카 나미비아로 떠났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인 김 선교사는 차마고도라는 티벳에 관한 다큐멘타리를 보다 그곳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본 후 그 지역을 섬기는 풀타임 선교사로 자원해 떠났다.

신학교 후배 중 가장 촉망 받던 후배 하나는 치과의사인 아내와 함께

캄보디아 선교사로 떠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그저 내가 가까이서 본 것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1.5세 2세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다.

최근에 만난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1.5세인데 잘 하고 있던 목회를 접고 중국과 북한 선교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분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에 많은 1.5세와 2세 선교사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차례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을 다녀 보면서 적어도 이 지역만큼은 1세대들이 맡아야 할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아무래도 2세들의 입장에서 1세만큼 이곳에 대한 애착과 공감대를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서도 2세 선교사들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목사님에 의하면 이곳의 1.5세, 2세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익힌 국제적인 안목에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었다. 놀랍고 고마운 일이었다.

1세대들의 눈으로 보면 2세대들의 모습이 아직도 미덥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쓰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일군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합지졸에서 전사로”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고 그 길로 병원으로 실려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그러나 꾸준한 훈련 덕에 선수들의 기량이 조금씩 향상되었고,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해 일본 원정경기까지도 초대받게 되었다는 기적의 이야기이다.

“플로어하키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김영규(지적장애 2급, 17세) 학생은 지적장애 6급인 아빠와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와 산골짜기에 산다.

팀 멤버 중에 나이가 최고령인, 김재영 선수는 나이가 51세이다. 정상인도 이미 선수생활을 은퇴했어도 별 썩혀야 할 나이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공을 향해 땀 때, 땀을 들고 달릴 때 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경기장에서는 모든 게 평등했다. 자신의 나이도, 지적장애 3급이란 숫자도, 주변의 시선도 잊을 수 있었다.”

나도 매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가장 재미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니, 너무 행복해서 주변의 시선도 잊고, 나 자신도 잊고, 오합지졸인 내가 하나님의 전사로 정금과 같이 생생하게 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푼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World for Jesus Mission University 예수선교 종합대학

본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BPPE)으로부터 정식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CAPPS에 가입된 학교입니다.

문의 연락처: World for Jesus Mission Center

Tel: 213.389.0258 / Cell: 213.700.6100

담당책임자: David K. Yim(임순중 목사) 선교학박사(D. Miss), 목회학 박사(D. Min), 신학박사(D.T.S.)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A 과정	목회신학학사	128	4	고졸
M.Div 과정	목회신학석사	96	3	대졸
D. Min 과정	목회학박사	64	2	석사
D. Div 과정	목회신학박사	64	2	석사
D.T.S.	신학박사	64	2	석사
Ph.D과정	종교철학박사	40	2	석사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40학점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40학점				

비학위 과정-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연구과정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Diploma)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 1통(본교 소정양식)
- 3)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촬영) 3매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목회신학석사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요망)
-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6) 개인 신앙고백서 1통 및 이력서

말없는 순종



남 성 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2004년 2월 1일에 있었던 슈퍼볼 경기에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대(大)역전극이 펼쳐졌다.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은 경기를 거의 다 이기다가 막판에 캐롤라이나 팬더스 팀의 천재 쿼터백에 의해 후반 몇 분을 남겨두고 1점차로 역전을 당하고 말

았다. 이 때 뉴잉글랜드 팀의 감독은 최후의 작전을 구사한다. 최대한으로 상대방 골문 가까이 나아가는 작전이다. 그러나 아무리 앞으로 전진해도 좁혀질 거리를 좁힐 수가 없었다. 드디어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48야드 거리에서 감독은 승부를 던진다. 키키를 등장시킨 것이다. 보통 감독같은 이 정도의 먼 거리에서는 절대 키키를 등장시키지 않는 법인데, 감독은 '에덤 비네트리'라는 선수를 불러 들었다. 그는 이미 2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키를 감독이 불러들인 것은 그만큼 믿었다는 것이다. 드디어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힘껏 볼을 차 올렸다. 48야드 지점에서 차 올린 공은 상대방의 골문을 통과하면서 경기는 뉴잉글랜드 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

풋볼에서 키키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선수이다. 오히려 벤치에 앉아 있는 시간이 더 많다. 남들은 전후반을 화려하게 조명을 받아가면서 경기를 하지만, 키키는 늘 벤치 뒤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다리며 혼자 공을 차는 연습을 한다. 화려한 주연들 뒤에서, 가려져 있는 빛나지 않는 자리가 바로 키키의 자리이다. 그러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엇 팀은 에덤 비네트리라는 선수가 없었다면, 2004년 슈퍼볼의 승리를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말없이 뒤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탐과 수고 때문에 화려한 슈퍼볼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주연보다 뒤에서 말없이 순종한 자들의 탐과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면에서는 화려한 주연보다 뒤에서 말없이 순종하는 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복음의 역사 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도왔던,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디아 같은 여성기업인이 있었기 때문이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헌신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끝에 어김없이 자신을 위해 함께 동역하며 뒤에서 말없이 순종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 저들의 말없는 순종이 없었다면 결코 사도 바울의 이방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다. 교회는 담임목사가 주연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주연은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만전하에 선포하기 위해 담임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은 말없는 순종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긴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역할이 쓰임 받기를 위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어떨 때는 자신이 한다고 했지만, 실수할 때가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공, 교회와 역사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대역전극의 감격과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셋째 지팡이



이 학 진 장로
사랑의빛선교회

세 단계로 나누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난 주의 '하나님과의 언약수립'에 이어 하나님과의 언약의 둘째 부분인 '언약의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둘째, 3단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갱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에 걸쳐 세겜에서 여호수아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합니다(수 8:30-35, 24:1-28).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다짐을 주시고(수 1:8)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수 1:9).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배를 겪었던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세겜에서(창 12:6-7 아브라함, 창 35:4 야

곱) 돌기둥과 돌단을 쌓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다 기록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합니다(수 8:30-35). 그리고 그리스 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신 27:11-28:14). 가나안 정복이 거의 마무리 지어질 무렵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행합니다(수 24:25-28). 이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선민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참고, 시내 산 언약과 세겜 언약의 비교, 썩 난 지팡이 구약, 124쪽). 다섯 왕조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 속에서 이룬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주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하나님께 언약하는 기도를 드립니다(삼하 7:18-29, 대상 17:16-27).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삼하 7:13-16) 다윗은 그가 죽을 때가 임박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왕상 2:3-4). 하지만 이후 여러 왕들과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 계속되다가 유대

의 왕 요아스 때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세웁니다(왕하 11:17, 대하 23:16-21). 그리고 요시아 왕 때에 성전을 정화하면서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언약 갱신 의식을 성대히 거행하며(대하 34:29-33)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대하 35:1-9). 그러나 요시아 왕 이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의지한 채 선지자들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의 죄악과 악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마저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백성에게 생활 속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의 갱신을 하게 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갱신으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포로시대를 지나면서 세운 언약의 갱신으로,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

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거할 때에 그들이 땅에 피를 쏟았으며 제사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들로 더럽혀졌으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흠뻑 열방에 헤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북 이스라엘과 남 유대의 멸망). 하지만 열국 사람들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의 목전에서 여호와와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이방이 빼앗은 이스라엘의 땅은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예언자들의 주제, 심판과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종 아람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거주할 것이요,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의 많은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겔 37:4-6)하니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겔 11:17-20)을 통하여 그들과 화평의 언약(겔 36:24-32)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화평의 언약의 주제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사 41:10-11, 42:6, 49:8, 렘 31:23-22, 23-24)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인 회복을 보여 드립니다. 유대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돌아온 스룹바벨이 주축이 되어 성전을 재건하고 뒤를 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합니다(느 8:1). 총독 느헤미야는 율법을 들은 백성들에게 이 날을 주의 성일로 지키고 기뻐하고 즐기도록 합니다(느 8:9-12).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며(느 8:14-19), 학사 에스라는 이레 동안의 절기의 첫 날부터 끝 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에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인봉하게 합니다(느 9:38, 언약 갱신서의).

기독일보

편집위원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Life

건강 칼럼

데미엔젤, 그 위대한 사랑과 치유의 여정

여러분에게 치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긴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치유한다!"는 진리가 가슴 떨리는 감동으로 섬세하게 묘사된 권의 책. 이 책을 마음을 열고 읽어가다 보면, 치유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통찰하게 될 것입니다.

스물 한 살의 딸이 어느 날 내 앞에 소설 문치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치유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소중한 보물이라며 일 년 동안의 작품을 수줍은 손으로 꺼내 보였습니다. 딸의 원고 문치를 훑어보면서 겨우 스물 한 살짜리의 소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유려한 문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장편 소설을 쓰는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엄마인 나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딸에게 우리만 보기에 너무 아까우니 여러 출판사에 투고를 해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용기를 냈고, 그 원고는 여러 출판사에

보내졌습니다.

대부분 응답이 없었는데, 마침내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난 후, 아주 크고 훌륭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 기적같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1부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은 3부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상처 많은 여자 주인공 앞에 하늘의 영광을 버린 한 천사가 다가와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줍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 사랑을. 이 남자 주인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천상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나를 위해 목숨도 아낌없이 주신 사랑! 세상에 이런 사랑을 믿기만 한다면 치유의 빛이 스며 나와 어두운 상처가 낱알이 완전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위대한 영혼이야... 네 상처까지도 나는 사랑해... 너의 가치를 너는 모르고 있어... 네가 치유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언제나 눈부시고 언제나 아름다워..."

여자 주인공은 그런 남자 주인공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은 너무 못났고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못난 자신이 남자 주인공의 완벽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의 사랑이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녀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은 엄마인 나의 어린시절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가져왔고, 읽는 내내 내 어린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가슴이 뜨거워지며, 설렘으로 읽었습니다. 클라이막스에서는 눈물이 쏟아졌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그 위대한 사랑은 아무리 큰 상처라도 치유합니다!" 인터넷 매체에서는 데미엔젤을 두고 '치유와 성장 소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과 고통과 고난, 고난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완전한 사랑과 치유...

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데미엔젤』이 많은 독자 분들께 위로가 되고 사랑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는 소설이었으면 합니다."

요즘엔 그 어떤 때보다 힐링(치유)에 관한 책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상처라는 것에 대해 오히려 더 무감각해진 면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소설 속 '준' 역시 큰 상처 속에서 자라왔지만,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는 성향이 있죠. 무조건적으로 준을 사랑하는 로이는

준 못지않은 상처를 겪고 극복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의 주제인 '사랑과 치유'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저 완벽해 보이는 남자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 중요한 것은 로이의 내면과 성장 과정이었고, 그의 성숙한 사랑이 준의 마음에 닿아 치유를 일으킨 것이라고 독자 분들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의 준, 로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판타지소설을 뛰어넘는 치유와 감동이 될 텐데, 『데미엔젤』이 그런 계기를 주고 작은 보탬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준과 로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사랑과 치유의 관계가 세상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목사

성지순례 칼럼

출애굽의 바로는 누구일까? (2)

우드 교수는 자신의 강의에서 창세기 47:11과 출애굽기 1:11, 12:37에서 언급되는 라암세스(라암셋, Rameses)의 이름을 '도로의 출입문'이라는 뜻을 가진 이집트의 단어 'RW3TY'22에 연관시키고 있다.

그는 그것을 텔-엘-다바(Tell el-Daba)에 있는 새로운 인구 중심지의 Stratum d/222에 연결시킨다. 이곳은 오스트리아의 고고학자 맨프레드 비테크 교수에 의해서 발굴되고 있는 현장이다. 비테크 교수에 의하면 이 지층에는 가나안인들의 요소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

우드 교수는 비테크 교수가 발굴한 지층을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인과 연관시키고 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를 라암세스 2세로 산정하는 사람들은 '라암세스(Rameses)'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바로가 이라암세스와 동일인임을 지지하는 증거

라고 한다.

그러나 만약에 라암세스가 출애굽기의 바로라고 하면, 그의 시체는 카이로 박물관이 아닌 홍해의 해저 바닥에 누워 있어야 한다.

우드의 주장은 라암세스의 이름을 성경의 구절에 연결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 때 당시를 올바르게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이집트에는 이스라엘 노예에 대한 증거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노예들의 돌연한 실종, 10대 역병과 재앙으로 인한 이집트의 폐쇄, 이집트 군대의 궤멸 등 여러 가지 고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데는 당시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출애굽은 솔로몬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은 해보다 48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열왕기상 6:1). 이것은 출애굽이 BC 1446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430년 앞선 때였기에 (출애굽기 12:40, 갈라디아서 3:16, 17), 그 때는 BC 1850년경이 될 것이며, 노아의 시대로부터 창세기 12-13장에 걸쳐서 주어진 연대들을 따져보면, 전 지구적인 대홍수는 427년 앞선 BC 2302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집트 연대기에 관한 대부분의 권위자들에 의하면 피라미드들은 BC 2350년경에 건축되었으며, 이집트 최초의 왕조는 BC 3100년경에 통치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이집트의 연대기와 성경 기록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집트 최초의 왕조는 물론 피라미드들의 건축도 대홍수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

록이라면,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집트의 연대기에 오류가 있음이 틀림 없을 것이기에 수 세기를 삭감하여 계산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이집트 역사에서 현재 통용되는 연대기를 인정하고 성경의 연대기를 거부하는 것은, 옛세 만에 완성했다는 창조의 기록을 포함하여 성경 초기 기록의 잔여 부분에 대한 회의에 문호를 열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이집트 연대기의 오류가 증명되면, 성경 기록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장애가 제거될 것이며, 그 때에 가

서는 창세기 역사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출처: 데이비드 롤의 <시간의 풍상>).

*David M Rohi은 현상 고고학자로서 매년 성지순례 그룹을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집트 연대기의 잘못된 점과 새로운 연대기를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고 그 내용이 「시간의 풍상」이라는 책으로 한국에서 출판됐습니다.

김용규 목사
령천교회 중동 선교사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캐리 국제 대학교" 에서!

수련회, 영권캠프, 영혼사, 영권행사, 기숙사, 게스트룸, 강의 및 단기 숙박

예약 및 문의: Grace Lee 626.398.2415 conference@wcu.edu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www.wcuproperties.com/conferences/korean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봉 ■ 1박스(3개월분) 360봉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at El Monte

<p>VERACRUZ Limited 2012</p> <p>MSRP.....\$35,62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Competitive.....\$1,500 Other rebate.....\$1,500 Total drive off.....\$6,995</p> <p>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ANTA FE SE AWD 2012</p> <p>MSRP.....\$32,565 Cash out of pocket...\$3,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Competitive.....\$2,000 Other rebate.....\$1,000 Total drive off.....\$5,995</p> <p>Lease \$259 per month plus tax</p>	<p>SONATA GLS 2013</p> <p>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4,995 Other rebates...\$1,500 Competitive.....\$500</p> <p>Lease \$89 per month plus tax</p>	<p>ELANTRA GLS 2013</p> <p>MSRP.....\$19,015 Cash out of pocket...\$2,995 36 month lease 12k miles per year Total drive off...\$3,995</p> <p>Lease \$79 per month plus tax</p>
---	--	---	--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 믿음있는 세일즈맨 alex shin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no credit, bad credit, 유학생환영
■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현대딜러
■ 최고의 가격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이행시는3월20일 까지입니다.

Assurance
Tel. 888.409.3002

Special APR based on 36 month financing. Based on above average credit, must finance with HMF to qualify.
HYUNDAI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COVER STORY

온누리교회가 '40代의 목사'를 담임으로 선택한 이유

온누리교회가 지난 2011년 故 하용조 목사의 후임으로 이재훈 목사를 선택한 것은 여러 모로 '파격'이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당시 이 목사가 겨우 43세의 젊은 목사였다는 점이다. 대형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온누리교회의 이 같은 선택은 교회를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의 모험이었던 셈이다.

온누리교회 뿐만이 아니다. 최근 국내 주요 대형교회의 담임목사들을 보면 40대부터 시작해 50대 초·중반의 젊은 목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흥민기 목사(42·부산호산나교회), 진재혁 목사(49·지구촌교회), 김승욱 목사(49·할렐루야교회), 이찬수 목사(52·분당우리교회), 고문산 목사(44·강남교회), 홍성욱 목사(53·안양제일교회), 김병삼 목사(49·만나교회), 김은호 목사(53·오륜교회), 소강석 목사(51·새에덴교회), 박완철 목사(55·남서울은혜교회), 석기현 목사(55·경향교회), 화종부 목사(52·남서울교회), 김정석 목사(52·광림교회) 등이다. 중형교회와 특색 있는 청년교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는 교회를 개혁한 1세대 목회자들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교회에서 40대의 젊은 목사들까지 후임이 되는 것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부산의 대표적 대형교회 중 하나인 호산나교회도 최홍준 목사에 이어 당시 갓 40세가 된 흥민기 목사를 청빙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최홍준 목사는 흥 목사를 후임으로 정한 데 대해 "장래성을 보고 결정했다"며 "글로벌 시대 영어실용과 가



한국교회가 젊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짙은 한국교회에서 40대의 젊은 목사들까지 후임이 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순서대로 김병삼(49)·진재혁(49)·흥민기(42)·이재훈(45) 목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목회적 활용'이다. 다수의 목회자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교인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젊은 목회자일수록 그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전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대교체 과정에서 '부작용' 또한 종종 목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원로목사와의 갈등이다. 이는 일반적인 '세대 차이'로 인해 나타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선 원로목사에 익숙해진 교인들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일종의 '과도기적 현상'인 것이다.

교회돌봄연구소 김종석 목사는 "많은 교회들이 보다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젊은 목사들을 청빙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외형적 기준만으로 청빙이 이뤄진다면 비록 조건을 갖춘 젊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과도기적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원로목사와의 갈등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므로 교회는 젊다는 것에 더해 목회관과 비전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며 "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방향, 그리고 앞으로 기대하는 변화 등에 비춰 청빙 대상을 결정한다면 이 같은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후임자 역시 과도한 의욕에서 개혁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 부임 후 3년은 변화보다 적응에 우선순위를 뒤야 한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젊어지고 있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또 한 번의 부흥을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진영 기자

젊어지는 한국교회

부작용 줄인다면 도약의 발판 될 것

능하고, 무엇보다 젊은이들을 향한 꿈이 있다. 호산나교회를 이끌어 갈 충분한 재목"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의 말을 분석해 보면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들이 왜 젊은 목사를 선호하는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젊음 그 자체다. 한국교회는 교세의 전반적 쇠퇴 속에서 대사회적 신뢰 또한 잃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변화와 개혁을 체질 개선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가장 많이 외쳐왔고, 여기에는 기존의 악습과 구태를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는 '젊은 리더'가 필수적이다.

교회들의 개혁의지는 단순히 '젊음'을 선택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인선 과정에서 그것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한국은 여전히 '연(緣)'에 민감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학연·혈연·지연 등은

청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도 최근 대형교회들의 청빙에선 비교적 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미 언급한 온누리교회다. 제2대 담임 이재훈 목사는 온누리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측의 장로회신학대학교 출신이 아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학연의 파괴'를 말할 순 없겠으나, 온누리교회가 초대형교회를 감안하면 이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시 최홍준 목사의 발언으로 돌아가, 교회들이 젊은 목사를 선택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글로벌화 준비'를 들 수 있다. 이는 최근 지구촌교회를 필두로 한 많은 대형교회들이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민 목회'의 경험을 가진 목사들을 청빙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영어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문화적 다양

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목회자들이다. 한 마디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이들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청년'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한국교회는 청년들의 '유출'에 아파하고 있다. 교회는 고령화의 길을 걷고 있고, 이로 인해 전도와 선교의 역동성은 점차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청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청년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해가는 데 있어, 리더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것이 청년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교회에 나타내는 대표적

아하! 행복한 가정이 보인다

허물을 덮어 주는 가족



"우드득...!"
 "어머! 여보? 돌 씹으셨어요?"
 "응음..."
 "아이구, 여보 미안해요! 이상하네, 요즘 쌀엔 돌이 없는데..."
 "미안하긴? 당신이 일부러 돌을 넣은 것도 아닌데..."
 "아이, 그래도 미안해요! 이빨 상하지 않았을까?"
 "여보! 괜찮아! 이놈의 돌이 왜 심혀 가지고... 여보! 걱정마!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더 많아!"

자신의 허물과 부족, 그리고 실수와 실패를 덮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회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어 말거리나 문제로 삼는다. 그리고 사건으로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하는 일들이 매우 흔하다. 사회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정은 가족 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복도가 높은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문제아로 자

랄 리가 만무하다. 혹시 부모가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이를 덮어 주고, 물론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부모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준다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했다. 이 세상에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아

내 허물, 남편의 허물, 자녀들의 허물을 크게 보면 사람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는 가족 옷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인간을 사랑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사랑이다. 가족의 단점, 문제, 허물, 실수를 덮어 주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드러내 놓기도 부끄러운 이것을 다른 사람이 덮어 주기 바라는가? 아니면 노출시켜서 이야기

거리로, 사건으로 만들어 폭로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항상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축소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려는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서로 허물을 덮어 주는 가정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며, 사막과 같이 삭막한 사회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될 것이다.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전요섭 목사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라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75 S.Vermont Ave.#102, Los Angeles, CA 90006 T.213.386.5858 / C.213.663.9556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판매 김기형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혼인, 이혼, E2 투자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노인 시민아파트 신청대행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코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 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자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방베어 농축 흡연소

상왕 흡연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흡연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흡연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흡연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Living water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높고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반영구적 집안, 밖 100% 사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신제품 알로에-에타글루코산 분쇄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제작관리 및 수정

쇼핑몰, 게시판 관리

다양한 디자인 배너제작

start from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교통사고
- 즉시 효과보는 침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안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스마트 월드**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원래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출몰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로테오 갤럭시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기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귀하를
푸엔테힐스 현대로
초대합니다.”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2013 EQUUS Signature

\$539
+TAX (STK. 066759)

48Month lease /12k mile/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5,359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12k mile/ T.D.O 2,999

MSRP \$22,770

PH HYUNDAI D/C \$1405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5
+TAX (STK. 693375)



36Month lease /12k mile/ T.D.O 3,999

MSRP \$19,350

PH HYUNDAI D/C \$945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15
+TAX (STK. 729686)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